

최대 시청자수는 어디까지인가 ‘내일은 미스터트롯’



민경숙 | TNMS 대표
매스커뮤니케이션 박사
min.gs@tnms.tv

TV조선 ‘내일은 미스터트롯(이하 미스터트롯)’이 종편 역사상 최고의 인기를 얻고 막을 내렸다. TNMS 통합시청자 수 데이터(TTA:TV Total Audience)에 따르면 ‘미스터트롯’ 2020년 3월 12일 결승전(11회) 방송은 본 방송 이후 일주일 동안 본방송+재방송(자사+타사 채널)+VOD를 통해 총 1,533만명의 시청자가 시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. TNMS가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집계한 TTA 데이터 최고 기록은 KBS2 주말드라마 ‘하나뿐인 내편’ 104회 1,691만명이다.

‘미스터트롯’과 ‘하나뿐인 내편’의 차이점을 살펴 보면 매우 흥미롭다. 두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공통점은 아무리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이라 하더라도 본방송+재방송+VOD 통합 총 시청자수가 최대 1,700만명을 넘는 기록은 아직 없다는 것이다. 또 두 프로그램 비교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는 본 방송에서 시청률이 낮아도 재방송에서 얼마든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. 상세히 아래에서 살펴 보도록 하자.

KBS2 ‘하나뿐인 내편’ 104회 본방송 시청률은 41.9%(TNMS, 전국가구)였고, TV조선 ‘미스터트롯’ 11회 1부, 2부 평균 시청률은 30.3%(유료가입)였다. 동일하게 전국가구 기준으로 두 프로그램 시청률을 비교해 보면 ‘미스터트롯’ 시청률은 29.2%로 ‘하나뿐인 내편’ 보다 12.7%p 낮다. 시청자 수로는 ‘하나뿐인 내편’ 본방송이 1,101만명, ‘미스터트롯’ 본방송이 902만명이었다. 199만명 차이가 난다.

하지만 재방송에 와서는 두 프로그램 경쟁력이 다르게 나타난다. ‘하나뿐인 내편’ 본방송 후 일주일간 재방송 평균 시청자 수는 48만명이었고 ‘미스터트롯’ 재방송 평균 시청자 수는 156만명이었다. ‘미스터트롯’ 재방송 평균 시청자 수가 ‘하나뿐인 내편’ 보다 무



사진 출처 : TV조선 ‘내일은 미스터트롯’



사진 출처 : KBS2 ‘하나뿐인 내편’

려 108만명이 더 많았다. '하나뿐인 내편'은 KBS2, KBSW, KBS 드라마 3개 채널에서 본방송 후 일주일간 12번 재방송을 했고 '미스터트롯'은 TV조선에서 4번 재방송을 했다. 따라서 본방송에서 더 많은 시청자가 시청해 경쟁력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재방송에서 본방송과 같은 정도의 경쟁력이 동일하게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.

이러한 현상은 재방송과 VOD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. 재방송 구간에서 경쟁력이 높았다고 해서 VOD 구간에서 경쟁력이 비례해 높지 않았다. '하나뿐인 내편' VOD 시청자수는 본 방송 후 일주일동안 13만명, '미스터트롯'은 6만명이 시청했다. 재방송 평균 시청자수는 '하나뿐인 내편'이 적었지만 VOD 구간에서는 '하나뿐인 내편'이 '미스터트롯' 시청자 수 보다 많았다.

마치 시청자 수 총량의 법칙이 존재 하듯 본방송에서 어느 정도 시청자 수를 흡입하면 재방송에서 더 많은 흡입이 어렵고 재방송에서 Max에 가까운 시청자수를 흡수 하면 VOD에서는 더 이상 시청자 흡입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. 따라서 광고주들은 본방송 시청률이 높다고 본방에 광고를 하는 것 보다 시청 구간 별로 프로그램 특성을 분석해 시청자 흐름을 이해하고 전략적 선택으로 광고를 집행해야 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. 본방송·재방송·VOD 어떤 형태로 시청하든 광고주에게는 이들은 동일한 '시청자'들이다. **K A A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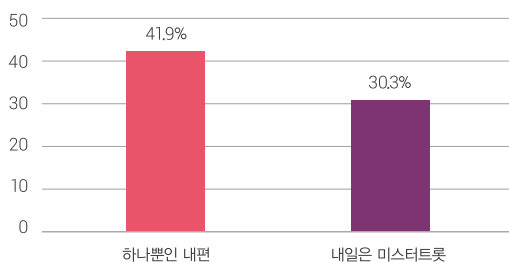
출처 : TV조선 '내일은 미스터트롯' 제11화 본방송 캡처

〈표〉 데이터로 본 '하나뿐인 내편'과 '내일은 미스터트롯' 본방송과 재방송 시청자 수

데이터 : TNMS

(단위 : 만명)

본방송 시청률(전국가구 기준)



재방송의 경쟁력

